



여수 송기홍



영암 서희권



영암 조대호



완도 김광수



진도 조상용



함평 김광춘



회순 박순철

담양군, 제3기 봉산면 지역 사회보장협의체 새롭게 출발

위원 17명으로 확대...디딤돌 사업 추진



담양군 봉산면이 제3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공동위원장 강정삼)를 위원 17명으로 확대해 새롭게 발족했다.

봉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8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해 위촉

장 전달과 민간공동위원장을 추대하고 2018년 하반기 첫 번째 사업으로 '디딤돌 사업'을 추진하기로 협의했다.

'디딤돌 사업'은 연로하시거나 장애로 인해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많아 이동의 불편과 낙상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집안과 경로당, 거리의 높은 턱을 완화시키는 사업이다.

앞으로 협의체는 '취약계층에게 안전한 보행환경을 보장하자'는 목표로 10월부터 실행을 시작하고 재원을 확보해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김민지 공동위원장은 "제3기 봉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디딤돌 사업을 시작으로 위원의 자발적 사업 구상과 그 실천에 모든 지혜를 모아 지역사회 사각지대 해소와 주민화합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편, 지난 제2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난방비 지원, 간병비 지원, 생필품 꾸러미 지원, 화장실 설치 등 지역사회 복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 지역민의 호평을 받았다.

담양=박종영 기자

영암군 완충저류시설 설치 350억 확보

대불국가산단 업종 다양화 길 열려

영암군의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이 환경부 국고 보조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대불국가산단의 업종 다양화에 길이 열렸다.

완충 저류시설은 낙동강 폐놀 유출 사고 이후 화학물질 등 유출사고 발생시 환경오염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오염물질 차집 설비다.

그동안 낙동강 유역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2015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영암군에서 안전한 국가산단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으로 설치를 건의 해왔다.

그 결과 2019년도 사업대상으로 선정되어 향후 4년간 국비 350억원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대불산단이 선박블럭 제조업으로 편중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하여, 환경부와 영산강유역환경청을 직접 방문하여 대불국가산단에서 환경오염사고 발생시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이 필수적이었다.

이번 보조사업 확보에 따라 앞으로

로는 산단 내 화재, 천재지변 등 각종 오염사고 발생시 화학물질 확산방지 등 주변피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1996년 준공된 영암 대불국가산단은 국내 정유사의 저류시설 4개소 등 각종화학물질이 다량 취급되고 있어, 사고 발생시 공단 주변과 서남해안의 대형 해양 오염사고의 우려가 많았고, 오염물질 제거에 천문학적 비용이 소요되어 신규 업종의 입주가 어려운 형편이었다. 이번사업을 통해 입주 여건 개선되어 업종 다양화 및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암=조대호 기자

화순군, 귀농현장실습교육 우수경영체 현장학습 실시



장학습을 실시하였다.

이날 참석 대상자들은 도시민 6명, 화순군 전업 귀농인 15명으로 귀농연수생들은 그동안 멘토를 통해 귀농연수를 받았던 농업기술 및 소감 등을 발표하였고, 선도농가는 재배기술의 노하우를 공개하였으며, 신양유 요구르트 만들기 체험을 통해 생산을 넘어 가공 체험이 농가소득의 중요한 분야임을 체득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였다.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좋은 아이디어를 얻게 되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도 있다고 하였다.

화순군에서는 먼저, 배워보고 귀농할 수 있도록 귀농교육을 추진 중이며, 귀농현장실습교육을 비롯한 도시민 멘토멘티 현장학습, 세대기영농 체험농장 교육, 농촌문화 체험프로그램, 농촌생활 활용교육, 귀농학교운영 등 다양한 교육을 지난 3월부터 추진해 오고 있으며 금년도 수료생은 150여명에 이른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매년 귀농귀촌연구가 증가함에 따라 귀농귀촌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귀농 실례를 줄이고, 맘 편히 화순군으로 귀농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화순=박순철 기자

여수시, 부동산가격 상승 속 불법 중개행위 잡는다

여수세무서·여수경찰서와 불법거래·중개 연중 단속

여수시가 최근 부동산 거래가격이 상승세를 보이며 불법 중개행위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특별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20일 시에 따르면 올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가 정체인 것에 반해 여수지역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서울의 매매가격 지수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부동산 시장에 불법거래와 불법중개 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시는 여수세무서, 여수경찰서와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연중 단속을 실시하며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단속과 함께 분양권 전매, 매매

계약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들도 적극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공급이 증가하는 '벤처단지'는 공공주택법에 의한 생활숙박시설로서 주택법이 적용되는 주택이 아니다. 이 때문에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나 반드시 계약자의 지위를 확인한 후 전매 등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여수=송기홍 기자

화순군, 기후변화대응 미래전략 작목 보급 나서

화순군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비사업 확보 노력 결과 산소독 이열대작목 단지 조성 및 고온기 시설채소 안정생산 기술 시범 등 4개사업에 4억7천 500만원의 2019년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을 확보하였다.

산소독 이열대작목 단지 조성 사업은 우리군 미래 전략작목으로 패션프루트를 육성하게 된다. 패션프루트는 백가지 향기가 난다고 하여 '백향과'라고 불리며 병해충 발생이

적고 수확 등 재배관리가 용이하며 특히, 전남도의 권역별 이열대작목 육성계획 중 우리군에 적합한 작목으로 선정되고 있어 체험, 가공 등 6차 산업과 연계한 대표 작목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고품질 안정생산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고온기 시설채소에 적합한 생육환경 조성을 위해 포그시스템 등 온도 저감기술 패키지와 사업을 시설원예단지 3ha에 실시하여 금년 여름과 같은 이상고온 등 기후변화

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미래전략 작목의 지속적 발굴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알몬, 오크라, 모링가 등 다양한 이열대작목을 발굴하여 실증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고온기 대응 농업분야 시설개선 사업 추진으로 안정적인 생산과 판로구축을 지원해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순=박순철 기자

영암군 '희망복지장터' 전통시장 찾다

군민의 소리 듣고 복지사각지대 발굴



영암군은 지난 20일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전통시장을 찾아 군

이번 행사는 군 주민복지실, 영암읍 맞춤형 복지팀, 협의체 위원이 합동으로 영암전통시장을 찾아 '동행 영암! 찾아가는 희망복지장터'를 운영하여 복지제도에 대한 궁금증 해소와 복지상담 서비스 제공, 협암 측정, 아광반사지 부착 등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앞으로 다가오는 추석명절 준비를 위해 시장을 찾은 주민들과 상인들은 다양한 군 복지제도 설명에 귀 기울여 주시고 주변 복지사각지대 발굴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셨으며, 따뜻한 격려도 아끼지 않으셨다.

한편, 희망복지장터는 찾아가는 복지행정의 일환으로 매달 전통시장을 찾아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다양한 복지제도에 대해 홍보하는 복지메신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영암=조대호 기자

친환경 천연 창성잔디

전남 장성군은

전국 최대의 잔디생산지이자, 30여년의 잔디 재배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어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품질, 용도의 잔디를 제공하고 있는 한국 잔디 생산의 메카입니다.

장성잔디

장성잔디향토사업단

061. 393. 8981

전국 잔디 생산량 62.2%

장성군은 전국 잔디의 62.2%를 생산하는 국내 최대 잔디 생산지 생산액은 304억 규모로 생산액 기준으로는 전국의 66.5% 차지

국내 최고의 품질

토질이 우수한 황토 흙에서 키워 품질이 우수하며 잔디의 맺장 강도가 매우 높음.

현대화된 장비로 효율적 관리

잔디의 회전율이 높고 예지 후 잔디 예초율에 대한 수거작업 실시로 대취 관리 병행